

주요소식



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회

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 발표회 개최 ‘LET'S GO 2025 전략’ 세부과제 등 부문별 실적 보고 진행

각 부서별 현황 및 분석을 통한 발 빠른 대책과 생존 전략 수립을 위해 매 분기 전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 발표회'가 7월 14일 부산인력개발원 녹산교육훈련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에 따라 4개 법인(선보공업·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선보피스)의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를 한곳에서 진행했다. 법인별 책임 이상 임직원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보고 일정은 사가 제창 및 최금식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 일정으로 선보공업의 친환경 기술 가치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 'LET'S GO 2025 전략'의 팀별 발표

가 마련되었다. 해당 발표에서는 4대 전략 목표인 △명품 모듈 신(新)격차 △친환경 LNG 연료공급 유니트 FGSS(Fuel Gas Supply System) 성장 가속 △기술 사업화 신성장 동력 △가치 공유 지속가능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HSE팀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현황을 포함한 영업부문 보고를 끝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됐다.

중식과 기념 촬영 후에는 경영기획부문의 조선 시장 분석과 원가 절감 보고를 시작으로 7개 공장부문, 설계 부문(조선·플랜트), 품질부문, 자재조달, 경영지원, 경영기획에 이어 전산부문의 발표를 이어갔다. 저녁 6시까지 이어진 이날 발표회는 최금식 회장과 김상도·김

청욱 대표이사의 강평과 구호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금식 회장은 강평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철저한 자기 계발과 부서 간 장벽 해소를 위한 사내 분위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도 대표이사는 적기 자재 입고율이 생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기업과 협력사의 위기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고 함께 해결하며, 개인별 실적 달성이 전사 실적 달성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청욱 대표이사는 큰 틀에서 사업실적 보고 프로세스의 개편과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의 실현 및 활용에 있어 전산과 ERP 부문의 혁신 등 대규모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사소식

선보FAMILY-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

선보는 지난 8일 하나은행과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금식 회장과 김상도 사장을 비롯해 상무 이상의 임원진들이 선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을 포함한 하나은행 임원진들은 선보공업 본사에 도착해 홍보관을 둘러본 후 의전실에서 선보FAMILY 홍보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김정석 책임의 사회로 시작된 본식은 최금식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함영주 회장 화답사 ▲선보 신규사업 소개(정현우 책임) ▲MOU 체결식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체결한 각서는 상호 간의 성공적인 저탄소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선보와 하나은행은 저탄소 발전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공동개발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나은행은 선보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해 금융자문 및 자금조달,



산업환경 분석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선보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시장개척을 통해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소식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 통합 사업단 출범식 개최



지난 7월 15일 영도구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 통합 사업단 출범식'이 열렸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이하 친환경선박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추진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친환경선박은 엔진의 연료 전환, 연료전지·배터리 등 전기추진 및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등을 탑재해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그린십(green ship)' 또는 '녹색 선박'으로도 불리며, 선박 건조 과정에서 2025년까지 30%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규정한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고를 통해 친환경선박 사업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했다. 이 사업은 점차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비해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할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육·해상 실증을 통해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각 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하나의 통합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선보공업(신사업팀)은 컨소시엄 주관 기업으로서 ▲정우이앤이(주) ▲하이에어코리아 ▲한국해양대학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총 6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함께한다. 이번 연구는 선박 엔진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를 개발함으로써 국산화 및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63억 4천여만 원으로, 이 중 45억 원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다.

선보공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추진 과제를 크게 3가지로 세분화해 총 4년에 걸친 개발 계획을 설정했다. 연료공급시스템과 기자재의 설계 및 성능 검증, 선급 인증 단계부터 시연회 개최까지 거쳐 실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선보공업은 LNG 연료공급 시스템 제작 및 실증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소식

선보공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참여

경남 거제 옥포산업단지 및 해상 실증구역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선박 규제 특구' 사업에 세부 총괄 사업체로 선보공업(신사업팀)이 선정되어 참여기관 15개 업체와 협력하여 국비 260억원을 지원받아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실증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특구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다.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제작 및 실증이 불가능한 기술을 제약 없이 시험·개발할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조선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다. 특구 지정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이며, 해상실증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되는 실증 특례사업은 비료 및 화학 원료용으로만 사용되던 암모니아를 선박의 친환경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운용기술 개발 △암모니아 엔진 및 배기가스 처리시스템 해상실증 △500t급 암모니아 연료추진 실증선박 건조 등이다.

선보공업을 비롯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15개 기업들은 연료공급 시스템 구축과 선박 건조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특구사업자들은 법령 제한 없이 공급시스템 개발 및 해상실증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기자재 국산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소식

신규입사자

2022년 상반기 끝자락을 맞은 지난 7월 여섯 명의 신규 입사자가 선보 Family에 합류했다.

나권수·이용웅 책임(설계4팀), 강승우 책임연구원(에너지솔루션팀), 최치욱 선임(설계2팀), 이동규 사원(설계2팀), 남지태 선임연구원(에너지솔루션팀)이 그 주인공이다. 남은 하반기 선보의 힘찬 도약에 일익을 담당할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한다.



나권수 책임 / 설계4팀

이번에 새로 설계4팀에 경력으로 입사하게 된 나권수입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 잘 녹아들어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용웅 책임 / 설계4팀

선보인으로서 업무의 성실과 조직 내에서 인화(人和)에 힘쓰겠습니다. 단결하는 선보Family 조직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우 책임연구원 / 에너지솔루션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약하는 선보Family의 일원이 되어 기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보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남지태 선임연구원 / 에너지솔루션팀

선보유니텍 에너지솔루션 사업부에 입사한 남지태입니다. 선보유니텍의 신사업 추진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치욱 선임 / 설계2팀

설계2팀에 새로 입사하게 된 최치욱 선임입니다. 선보Family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규 사원 / 설계2팀

사회 첫발을 선보공업에서 시작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소식

선보유니텍, 한화임팩트와 수소 혼소 가스터빈 발전기술 협약 체결



7월 8일 선보유니텍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9개 협력사와 함께 한화임팩트와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선보유니텍은 한화임팩트가 본격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태우는 수소 혼소 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협약은 한화임팩트와 10개사가 F급 가스터빈 수소 혼소 발전 실증사업 정부 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해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소 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

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획기적인 친환경 기술로 평가 받는다.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적은 비용으로 개조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투자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선보유니텍은 협력사들과 함께 F급 가스터빈에 수소 혼소율 최대 70%를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39% 저감하는 실증 사업에 뛰어든 예정이다. 협력사들은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기존 가스터빈보다 발전용량이 큰 F급 가스터빈에 수소 혼소를 적용하는 정부 과제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임팩트가 실증 과제-연소기 개발과 연소기 부품제작 관리 등 과제 수행 총괄을 맡는 한편, 선보유니텍은 가스터빈 시스템 진단과 부품 국산화 제작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화 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석탄화력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오염원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실정이다. 수소 혼소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 에너지 확대는 앞으로 국내 신성장 동력에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가족관계 증진’·‘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스킬’ 주제로 아침특강 진행

7월 20일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교육장에서 <가족관계 증진-좋은 부모, 만점 남편 되기>와 <효율적인 업무수행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각각의 주제로 아침 특강이 열렸다.

아침특강은 기업 내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재개되어 4월부터 매월 진행 중이다.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특강은 각각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사하구 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오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가족관계 증진 특강을 맡은 전미란 강사(인교육전략 연구원 대표)는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교육을 담당해왔으며 부산 관내 다수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7가지 공통점’을 소개하며 직장가 가정 내에서 즐겁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대와 세대를 넘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직급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선보공업 김해공장과 선보피스 임직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강을 시청했다.

청소년 인성지도사 양성과 대한항공 승무원 CS교육 경력 등을 보유한 허윤진 강사(이음연구소 대표)는 선보유니텍 임직원들에게 업무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소통 방법을 소개했다.

EVENT

두구두구★ 우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벤트 결과

지난 호 <SUNBO NEWS>에서는 선보 3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자 각 팀의 팀장님을 소개하는 ‘우팀소’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설계5·6팀, 재무인사팀, 총무팀에서 팀장님들의 4인 4색 매력을 담은 소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된 설계5팀과 총무팀에는 간식비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설계5팀 / 김갑진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요...
“먹을 거 없나?”,
“오늘 점심 국 뭐고?”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번개모임을
특히 좋아하세요.
기회만 된다면 꼭 팀원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어 하세요.
“팀장님,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지금처럼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총무팀 / 김정석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요...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이걸로 되겠냐?”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스 달고나 라떼를
특히 좋아하세요.
기회만 된다면 꼭 다이어트하는 팀원들과
피자를 먹으며 소통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세요.
“팀장님, 건강하게 오래
팀장님으로 계셔 주세요!”



설계6팀 / 임우택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요...
“아 맞다. 그 OO 했냐?”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기억력이 좋으셔서 잘 챙겨주십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와 소주를
특히 좋아하세요.
기회만 된다면 꼭 팀원들과 함께
운동이나 회식을 하고 싶어 하세요.
“팀장님, 일도 좋지만 일찍
퇴근해서 개인 건강도 챙기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재무인사팀 / 최두영 팀장님

우리 팀장님은요...
“요즘 힘든 건 없지?”
와 같은 걱리의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후원도 하시고 동물보살펴 주는 것을
특히 좋아하세요.
기회만 된다면 꼭 팀원들과 화합을
다지고 팀원간 신뢰를 쌓고 싶어 하세요.
“팀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도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

“기술 보호가 기업 핵심 전략” 전사 보안 교육 실시



선보는 7월 13일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를 주제로 한 전사 보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선보공업을 비롯한 4개 법인 각 공장 교육장과 식당 등에서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진행한 김병모 강사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교육 경력을 두루 갖춘 기술보호전문가로서, 전 공장 임직원들에게 기업 기술 보호의 필요성과 핵심수칙을 전달했다. 김병모 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융·복합과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와 경쟁사 간 기술탈취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비 부담으로 분쟁 대응 또한 여의치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 보호 10대 핵심수칙

- 1 기술 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합니다.
- 2 보안관리 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3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4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과는 전직 금지 서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 6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접근, 복제, 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7 기술자료 제공 시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8 주요 설비, 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9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10 중요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합니다.



안전

‘긴 폭염에도 무사 기원’ 전 공장 안전기원제 열어



8월 6일 정오 선보 전 공장에서 안전기원제가 열렸다.

안전기원제는 선보Family의 무사고 안전 작업을 간절히 기원하는 행사로, 분기별로 진행 중이다. 공장 정면을 마주하고 의식을 진행한 안전기원제에서는 남은 하반기도 선보Family가 무재해 무사고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8월 초부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

위험성평가 인정서 수여식 개최

7월 28일 오후 1시 본사 4층 대교육장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및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선보공업은 사내협력업체들의 위험성 평가 인증 취득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과정을 진행했다. 다대1공장 협력사인 삼진공업사·재경공업·대신산업과 다대2공장 협력사인 창선 ENG·다우D&SUS ENG·성화산업, 선보유티텍 구평공장 협력사인 대성기업·서진기업·신흥산업·태산ENG·천조기업·하림기업이 인정서를 취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우수 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정부 포상 또



는 표창 우선 추천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 요일 0.2%p 감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1천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사원
- 인사, 교육 김정석 팀장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선임, 이대현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배상준 사원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본사 | 임성호(8.03) | 박귀남(8.13) |
|----|-----------|-----------|
| | 김성민(8.04) | 손범석(8.18) |
| | 정병진(8.06) | 이용웅(8.23) |
| | 임영삼(8.09) | 권예라(8.27) |

| 다대1공장 | 김종만(8.04) | 이현철(8.18) |
|-------|-----------|-----------|
| | 김희규(8.07) | 박경재(8.30) |

| 다대2공장 | 양정길(8.07) | 케 빈(8.14) |
|-------|-----------|-----------|
| | 정호경(8.12) | 김영호(8.16) |
| | 이창현(8.13) | 이기현(8.25) |
| | 정지훈(8.13) | 김천기(8.29) |

| 선보피스 | 이기훈(8.18) | 김형규(8.26) |
|------|-----------|-----------|
| | 최영철(8.21) | |

| 구평공장 | 신용화(8.01) | 김태만(8.17) |
|------|-----------|-----------|
| | 권오용(8.04) | 이동준(8.17) |
| | 정정배(8.06) | 정현우(8.20) |
| | 강화진(8.08) | 이연호(8.23) |
| | 하보선(8.08) | 공대성(8.25) |
| | 정준영(8.14) | 양승현(8.28) |
| | 김광수(8.15) | 유성우(8.28) |
| | 조상연(8.16) | 제병재(8.31) |

| 영암공장 | 손명기(8.06) | 이효정(8.09) |
|------|-----------|-----------|
| | 황창하(8.06) | 강보철(8.22) |

입사기념일

| 본사 | 최금식(8.01) | 이우석(8.08) |
|----|-----------|-----------|
| | 정대환(8.03) | 임성호(8.08) |
| | 원윤정(8.03) | 서장원(8.12) |
| | 이동원(8.04) | 최경호(8.13) |
| | 안창희(8.08) | 이예령(8.16) |

| 다대1공장 | 김정민(8.07) | 정지원(8.27) |
|-------|-----------|-----------|
| | 이은식(8.16) | |

| 다대2공장 | 노재태(8.02) | 김천기(8.11) |
|-------|-----------|-----------|
| | 김은식(8.06) | 성민철(8.12) |
| | 이준의(8.08) | |

| 선보피스 | 권용관(8.04) | 이은하(8.04) |
|------|-----------|-----------|
|------|-----------|-----------|

| 구평공장 | 엄태길(8.05) | 신명환(8.24) |
|------|-----------|-----------|
| | 정정배(8.12) | 표종원(8.24) |
| | 성봉기(8.16) | |

| 영암공장 | 김대영(8.04) | 강보철(8.06) |
|------|-----------|-----------|
| | 양관열(8.05) | 이대현(8.06) |